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음 6월 3일) 제18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도내 출연기관 52개소 대상 '블라인드 채용' 추진

편견 'No' ... 오직 '실력' 만 본다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 발표 따라

출신지역·학력 등 인적사항 요구 금지 채용대상 직무 능력 평가

전북도는 도, 시군 출자 출연기관 52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출자 출연기관 블라인드 채용 추진은 지난 6월 22일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로 지난 13일 행정자치부에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 9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고 면접과정에서도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이 금지되고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채용 전 과정에서 채용직무에 대한 지식, 기술 등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편견 없이 공정한 과정으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에서는 8월중에 출자 출연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9월부터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 등 스펙과 출신지역, 신체조건 등을 따지지 않고 실력으로 평가함으로써 도 출자 출연기관이 편견이라는 벽에 가려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수상의 깃발을 흔들자"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 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송헌진 전라북도 도지사가 이낙연 국무총리(왼쪽)로부터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받은 뒤 깃발을 흔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법관회의 "대법원장 방침, 사법행정권 신뢰 크게 잃게 해"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 방침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에서는 8월중에 출자 출연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9월부터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 등 스펙과 출신지역, 신체조건 등을 따지지 않고 실력으로 평가함으로써 도 출자 출연기관이 편견이라는 벽에 가려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김진성 기자

법관회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법관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성명'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추가 조사를 거부한 양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권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회의 당시 결의했던 ▲현안조사위원회에 조사 권한 위임 ▲추가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전 조치 등을 대법원장에게 다시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에서는 8월중에 출자 출연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9월부터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법관회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법관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성명'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추가 조사를 거부한 양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권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법관회의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도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로 성명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양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다시 거부했을 경우 대책 등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1차 회의 결과에서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 방침에 반발하며 사표를 낸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관련된 안전을 논의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회의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내달 15일까지

전북도가 폭염특보 등 날씨가 많이 더워짐에 따라 여름휴가 집중되는 15일부터 8월 15일(1개월간)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까지 도내 계곡, 하천, 강 등 물놀이 대상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을 10개 시군에 109개소, 위험구역은 8개 시군에 45개소를 지정했다.

특히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시작되기 전에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표지판, 구명환,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시설 장비의 적절한 배치를 완료했다.

도는 26일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익사사고를 대비한 헬기 및 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훈련을 계획하고 있고, 29일에는 무주구천동 덕유산 국립공원앞에서 물놀이 안전캠페인 인을 실시해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기 홍보활동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으로 더위잡으러 오라"

도, 시군·관광협회와 여름휴가 홍보 나서
대전·세종에 이어 서울 주요거점서 홍보
전북관광 홍보사절, 29일 장흥 물축제장 방문

전북도는 시군 및 관광협회와 공동으로 여름휴가객 유치에 위한 현장홍보활동을 연일 펼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남시 판교 직장인 대상 홍보를 시작으로 20일엔 대전정부청사, 21일엔 세종청사에 이어 이번엔 서울역, 용산역과 서울 시내 주요거점에서 홍보활동을 펼친다.

특히 21일 세종청사 홍보는 도, 시군, 관광협회 등 30여명이 16개 정부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는데, 여름휴가가 끝 다음날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북의 맛집과 계곡, 가족단위 휴양지 등 구체적인 여행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세종청사는 16개 정부부처에 공무원 1만 5천여명이 근무하는 최대의 행정도시로서 국내여행을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커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6~7일에는 하림그룹, 다산네트웍스, 일진그룹, 아주경제신문사 등 서울 소재 기업체와 언론사 4개사를 방문, 전북투어패스와 2017 전북방문의

해 사내 홍보를 요청, 충청·전남 소재 대학 홍보활동에 이어 오는 27~28일에는 서울 소재 5개 대학을 방문 홍보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현장홍보 지원을 위해 도내 대학생으로 구성된 전북관광 홍보사절단을 운영 중인데, 관광학과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홍보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주요 타 시도 축제장 등을 방문하여 활동하는데 7월 22일에는 보령머드축제장을 방문하여 우리도의 관광자원을 홍보했고, 오는 29일에는 장흥 물축제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 육흥기 관광총괄과장은 "나홀간 지속적 홍보활동으로 팍팍한 2중, 1만부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전북관광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역축제, 단풍관광, 10월 연휴 등 여름휴가 이후 10월 관광성수기에도 맞춤형 상품 구성과 홍보강화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